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9호 [루게 제25117호] 주제 104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 성대히 진행

온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가 12월 3일과 4일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인민군대안의 각급 포병부대, 구분대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군사학교 일군들, 무도의 영웅포성원들을 비롯하여 명포수운동에서 모범적인 지휘관,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은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정도를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진정한 총대동지, 열렬의 전우가 되어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갈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으로 새세계 열어버리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으며 《포병중시사상》, 《주체적포병전법》, 《백두의 혼련열풍》, 《명포수운동》이라는 글발들과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위력한 포무장장비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장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포병싸움준비를 완성하고 주체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 개최를 선언하시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추악되었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이 포병부문에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포병싸움준비 완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대회보고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영길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포병무력이 걸어온 역사는 독창적인 포병중시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포병을 우리 혁명무력의 강위력한 전투대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명도의 역사이며 포병들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사랑의 역사 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뜨거운 격정속에 맞이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며 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직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포병싸움준비 완성에 헌신하여온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뜻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포병싸움준비에서 모범적인 부대, 구분대 지휘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표를 사회주의조선의 혁명적대정치 축전으로 맞이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번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주체적포병무력건설에 쌓아 올린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포병의 싸움준비를 완벽하게 완성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서 포병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일찌기 독창적인 포병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포병무력의 강화발전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고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포병싸움준비를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피어린 항일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포병무력건설의 깊고도 역센 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포병무력건설의 기틀을 마련 해주시고 정연한 포병지휘성원양성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병기공장의 터전도 잡아주시면서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군대를 강력한 포병을 가진 정규혁명무력으로 꾸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시고 우리 식의 포병전법과 포병리용원칙들을 밝혀주시면서 포병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서산탄일의 운명에 몰아넣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